

전주시,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 ‘앞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비용기 회수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비용기 반환수집소 설치·운영

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하고 재활용 문화확산을 위해 공병 반환수집소를 적극 설치기로 했다.

전주시는 20일 우범기 시장과 채영병 시의원,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장, (사)한국재사용비용기순환협회 이광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용기 반환수집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기 회수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비용기 반환수집소, 비용기 무인회수기 등 비용기 회수·재사용 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기 반환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비용기 반환수집소 및 무인회수기 설치장소 제공 △비용기 반환수집소 운영 전담인력 추천 △비용기 반환수집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홍보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한다.

센터는 △시민들의 비용기 반환촉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전주시가 제공한 장소에 비용기 반환수집소 설치 및 운영 △비용기 반환수집소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비 지원 △비용기 반환을 위한 무인회수기 및 보관 창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전주시는 20일 우범기 시장과 채영병 시의원,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장, (사)한국재사용비용기순환협회 이광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용기 반환수집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기 회수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센터는 첫 비용기 반환수집소를 덕진구 덕진동1가 소재의 ‘길공원’ 주차장주변에 1월 중에 설치하고 2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비용기는 소매점들 통해 반환하고 있으며, 1일 1인 30병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30병을 초과해 다량으로 반환하는 시민은 여러 곳의 소매점을 방문해서 반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비용기

반환수집소는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주(일일 4시간)하고 있고, 수량에 상관없이 반환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협력해 완산구에 비용기 반환수집소 설치를 추진하고, 24시간 비용기를 반환할 수 있는 ‘비용기 무인회수기’ 설치도 도입·운영할 계획이다.

채영병 시의원은 “시와 반환수집소의 업무 협약이 우리 지역이 환경 보

호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데 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비용기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겠다.”면서 “비용기 회수와 재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20일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2036 하계올림픽 전북에서”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유치 기원 ‘GBCH 챌린지’ 동참

20일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초화) 챌린지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올림픽 유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북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범도민달레이 캠페인이다.

남관우 의장은 김우민 군산시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남 의장은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로 더 큰 미래를 그려나가

요’라는 문구가 적힌 퍼켓을 든 인증사진을 개인 SNS 게시하며 챌린지에 참여했다.

남관우 의장은 다음 주자로 완주 군의회 유익식 의장과 전주시민대상 수상자회 최찬욱 회장을 지목했다.

남관우 의장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릴레이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전주시의회도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채용기업 월 70만원 인건비·2년간 취업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급

전주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중년층의 취업기회 확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신중년층의 채용 확대를 위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계유지에 보탬이 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17개 기업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월 70만 원씩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신중년 취업자에게는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기업의 자격은 전주시역의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통 가업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

대대상 6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취업지원팀(063-281-2554)으로 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중년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원사업 이외에도 전주시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무인민원발급기 일제 정비

설 연휴 대비 운영사항 점검·유지보수업체와 비상 연락 체계 유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용삼)는 설 연휴 기간 원활한 제증명 서류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산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일제점검에 나섰다.

구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여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관찰 등 주민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운영체계 정상 작동여부와 관리 상태 등 기기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명절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오류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체와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완산구는 현재 23개소 2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청·△완산구청·△전북특별자치도청·△충남당·평화2동·서신동·삼천1동·

삼천3동, 효치5동 주민센터 △예수병원, △서곡치안센터, △개인택시신협 등 총 12개소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한다. 이외에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완산구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이용하면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후 필요한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설 연휴기간에 시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신속·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덕진구 생활복지과, 설맞이 지역아동센터 방문 격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심규문)는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어려운 소외가정의 아동

들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급식 지원, 정서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날 덕진구 생활복지과(과장 박현영) 직원들은 명절 인사를 나누고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경, 시설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으며 생



필품과 백미 등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

박현영 덕진구 생활복지과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으로 돌바 주시기를 바라고, 작은 정성이지만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따뜻한 소통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갔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